

군산시 농특산물, 수도권 소비시장 공략

‘서울동행상회’ 입점 모집 지역 6개 업체 선정 성과 코엑스 명절 선물전 등도 농가·가공업체 참가 독려

군산시가 관내 우수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인지도 제고에 본격 나섰다. 특히, ‘서울동행상회’ 입점과 추석맞이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군산 농특산물 직거래 홍보 관측행사 등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농산물 소비시장 공략에 총력을 쏟고 있다.

‘서울동행상회’는 지역의 중·소농을 돕고 서울 시민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와 종로구 안국동에 설립한 농특산물 오프라인 상설매장이다. 경북공, 인사동과 인접해 국내외 관광객 등 유동 인구가 많고 낮은 판매 수수료 적용, 지자체 기획전 운영, 다채로운 판매 이벤트가 진행돼 각 지자체의 상품 입점 경쟁이 뜨겁다.

이런 가운데 시는 서울동행상회에 지역 가공업체의 입점 지원에 나서 국내 최대라는 큰 성과를 거뒀다.

서울동행상회 입점 업체 2차 모집에 군산시가 신청한 6개 업체 모두가 선정됐



서울동행상회 입점 업체 2차 모집에 군산시 6개 업체가 선정됐다.

다. 농부의 식품공장 이성일 농가 ‘귀리미숫가루’, (유)산들팜 ‘무작꼬꼬마양배추 사과’, 메인르브루잉 ‘해보선장라거 수제 맥주’ 등이다.

무엇보다 전국 74개 지자체, 124개 업체, 388개 상품이 접수했는데 판매 적정성·시장성 등 까다로운 1·2차 평가로 신청업체 62%가 탈락한 사실을 감안할때 매우 고무적인 일로 평가된다.

시는 이 여세를 몰아 서울동행상회에 지역 가공업체의 입점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우수 농특산물 팝업을 추진할 계획

이다.

그 일환으로 10월말부터 11월초까지 서울동행상회 외부공간에서 군산 농특산물 팝업 기획전을 준비중이다.

이를 통해 서울 시민과 인근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군산 우수 농수산물을 홍보·판매한다는 전략을 마련했다.

또한, 추석 명절을 맞아 서울광장, 은평구, 동작구, 강남구 등 서울 지역에서 개최되는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와 코엑스 명절 선물전 등 농식품 박람회에 지역 농

가 및 가공업체의 참가를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아울러 11월 8~10일까지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2024 서울야외도서관:광화문 책마당’ 특별 플랫폼 프로그램으로 동행마켓-로컬푸드 ‘군산’을 운영할 예정이다.

군산시 먹거리정책과 김미정 과장은 “지역 농특산물의 품질 고급화로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한 먹거리 홍보 마케팅으로 수도권 시장 판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군산 농특산물 서울·수도권 소비자 입맛 사로잡는다

군산시, 판로 확대 총력

군산시가 지역 우수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서울동행상회 입점, 추석맞이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참가 지원, 군산 농특산물 직거래 홍보 관측행사 개최 등 서울 수도권 농산물 소비시장 공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시는 지역 농특산물의 대도시 상설 판매와 홍보 기회 확대를 위해 서울동행상회에 지역 가공업체의 입점을 지원하고, 우수 농특산물 팝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동행상회는 지역의 중·소농을 돕고 서울 시민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에 설립한 농특산물 오프라인 상설매장이다.

특히, 경북공·인사동과 인접해 국내외 관광객 등 유동 인구가 많고 낮은 판매수수료 적용, 지자체 기획전 운영, 다채로운 판매 이벤트 등이 진행돼 각 지자체의 상품 입점 경쟁이 뜨거운 곳이다.

이번 서울동행상회 입점 업체 2차 모집에는 전국 74개 지자체, 124개 업체, 388개 상품이 신청 접수됐다.

이중 판매 적정성·시장성 등 까다로운 1·2차 평가로 신청업체 62%가 탈락한 가운데 군산시는 신청한 6개 업체 모두가 입점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광

장, 은평구, 동작구, 강남구 등 서울 지역에서 개최되는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와 코엑스 명절 선물전 등 농식품 박람회에 지역 농가 및 가공업체의 참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2024 서울야외도서관:광화문 책마당’의 특별 플랫폼 프로그램으로 11월 8~10일까지 광화문광장에서 ‘동행마켓-로컬푸드 군산’을 운영해 지역 농가 및 가공업체 생산품 판로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

김미정 먹거리정책과장은 “서울동행상회 입점에 군산 업체와 농특산물이 지자체 중 최대 선정된 것은 우수 품질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군산=김종준기자

전주일보

군산시, 지역 농특산물 수도권 판로 확대 총력

귀리미숫가루·루작꼬꼬마양배추사과 등 6개 업체, '서울동행상회' 입점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지역 농특산물의 판로 확대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서울동행상회에 6개 업체가 선정되어,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입점 성과를 거두었다.

서울동행상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오프라인 매장으로, 군산시는 이곳에 지역 가공업체의 제품을 배치하여 대도시 소비시장에 접근할 계획이다.

입점 업체로는 '귀리미숫가루', '루작꼬꼬마양배추사과', '짜보선창라거 수제맥주'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군산 농특산물 팝업 기획전이 예정되어 있다.

또한, 추석을 맞아 서울에서 열리는 직거래 장터와 농식품 박람회에 지역 농가 및 가공업체의 참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군산시는 지역 농특산물의 판로 확대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군산시

김미정 먹거리정책과장은 “군산 업체와 농특산물이 최다 선정된 것은 품질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품질 고급화와 마케팅을 통해 수도권 시장에서의 판로를 지속적으로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박상만 기자

새전북신문

군산시, 지역 농특산물 수도권 틈새 공략

서울동행상회 입점 상품 모집에 6곳 업체 선정, 전국 지자체 중 최다 동행마켓-로컬푸드 '군산' 운영으로 지역 생산품의 판로 확보 계획

군산=백영규 기자

군산시가 지역 우수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서울동행상회 입점, 추석맞이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참가 지원, 군산 농특산물 직거래 홍보 판촉행사 개최 등 서울 수도권 농산물 소비시장 공략에 주력한다.

우선 지역 농특산물의 대도시 상설 판매와

홍보 기회 확대를 위해 서울동행상회에 지역 가공업체의 입점을 지원하고, 우수 농특산물 팝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동행상회는 지역의 중·소농을 돕고 서울 시민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와 종로구 안국동에 설립한 농특산물 오프라인 상설매장이다.

특히 경복궁, 인사동과 인접해 있어 국내외 관광객 등 유동 인구가 많고 낮은 판매수수료 적용, 지자체 기획전 운영, 다채로운 판매 이벤트로 각 지자체의 상품 입점 경쟁이 뜨

거운 곳이기도 하다. 이번 서울동행상회 입점 업체 2차 모집에는 전국 74개 지자체, 124개 업체, 388개 상품이 신청 접수됐다. 이중 판매 적정성·시장성 등 까다로운 1·2차 평가로 신청업체 62%가 탈락한 가운데 군산시는 신청한 6개 업체 모두가 입점했다.

군산시 입점 업체는 ▲농부의 식품공장 이성일 농가 '귀리미숫가루', ▲산돌팍 '루작꼬꼬마양배추사과' ▲메인쿤보루잉 '짜보선창라거 수제맥주' 등으로 6곳의 선정 업체를 포함하여 총 13개 업체, 34개 상품이 입점한다.

또한 서울동행상회 외부공간에서 군산 농특산물 팝업 기획전을 10월 말에서 11월 초까지 열어 서울 시민과 인근 주요 관광객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 지역 우수 농수

산물을 홍보·판매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광장, 은평구, 동작구, 강남구 등 서울 지역에서 개최되는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와 코엑스 명품선물 등 농식품 박람회에 지역 농가와 가공업체들의 참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여기에 '서울야외도서관·광화문 책마당'의 특별 플랫폼 프로그램으로 마련된 11월 8-10일까지 광화문광장에서 동행마켓-로컬푸드 '군산' 운영으로 지역 생산품의 판로 확보를 더할 계획이다.

김미정 먹거리정책과장은 “서울동행상회 입점에 군산 업체와 농특산물이 지자체 중 최다 선정에 이끈 것은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크게 반겼다.

농특산물 수도권 판로 확대 '총력'

군산시, 수도권 각종 직거래장터 홍보·관촉 행사 참가 지원 등... 수도권 시장 집중 공략

군산시(시장 강임준)가 지역 우수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동행상회 입점, 추석 맞이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참가 지원, 군산 농특산물 직거래 홍보 관촉 행사 개최 등 서울 수도권 농산물 소비시장 공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군산시는 지역 농특산물의 대도시 상설 판매와 홍보 기회 확대를 위해 서울동행상회에 지역 가공업체의 입점을 지원하고, 우수 농특산물 팝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동행상회'는 지역의 중·소 농을 돕고 서울 시민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가 종로구 안국동에 설립한 농특산물 오프라인 상설매장이다.

특히 경복궁, 인사동과 인접하여 국내의 관광객 등 유동 인구가 많고 낮은 판매수수료 적용, 지자체 기획전 운영, 다채로운 판매 이벤트가 진행되어 각 지자체의 상품 입점 경쟁이 뜨거운 곳이기도 하다.

이번 서울동행상회 입점 업체 2차 모집에는 전국 74개 지자체, 124개 업체, 388개 상품이 신청 접수됐다. 이중 판매 적정성·시장성 등 까다로운 1·2차 평가로 신청업체 62%가 탈락한 가운데 군산시는 신청한 6개 업체 모두가 입점하는 쾌거를 낳았다.

이번에 입점한 군산시 업체는 △농



군산시는 지역 농특산물의 대도시 상설 판매와 홍보 기회 확대를 위해 서울동행상회에 지역 가공업체의 입점을 지원하고, 우수 농특산물 팝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의 식품공장 이성일 농가 '귀리미숫가루' △(유)산돌팜 '루작꼬꼬마양배추사과' △메인코브루임 '깨보선창라거 수제맥주' 등으로 이번에 선정된 6개 업체를 포함하여 총 13개 업체, 34개 상품이 입점하게 됐다.

아울러 서울동행상회 외부공간에서 군산 농특산물 팝업 기획전을 10월 말에서 11월 초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서울 시민과 인근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는 국내의 관광객에게 군산 우수 농수산물을 홍보·판매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광장, 은평구, 동작구, 강남구 등 서울 지역에서 개최되는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와 코엑스 명절 선물전 등 농식품 박람회에 지역 농가 및 가공업체의 참

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2024 서울야외도서관: 광화문 책마당'의 특별 플랫폼 프로그램으로 11월 8~10일까지 광화문광장에서 동행마켓-로컬푸드 '군산'을 운영하여 지역 농가 및 가공업체 생산품의 판로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

김미정 먹거리정책과장은 "서울동행상회 입점에 군산 업체와 농특산물이 지자체 중 최다 선정된 것은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군산시는 앞으로도 지역 농특산품의 품질 고급화로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한 먹거리 홍보 마케팅으로 수도권 시장 판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라매일

군산시, 지역 농특산물 수도권 판로 확대 총력

서울입점·직거래 행사 등 집중

군산시(시장 감임준)가 지역 우수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동행상회 입점, 추석맞이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참가 지원, 군산 농특산물 직거래 홍보 판촉행사 개최 등 서울 수도권 농산물 소비시장 공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군산시는 지역 농특산물의 대도시 상설 판매와 홍보 기회 확대를 위해 서울동행상회에 지역 가공업체의 입점을 지원하고, 우수 농특산물 팝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동행상회’는 지역의 중·소농을 돕고 서울 시민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와 종로구 안국동에 설립한 농특산물 오프라인 상설매장이다. 특히 경복궁, 인사동과 인접하여 국내외 관광객 등 유동 인구가 많고 낮은 판매수수료 적용, 지자체 기획전 운영, 다채로운 판매 이벤트가 진행되어 각 지자체의 상품 입점 경쟁이 뜨거워 곳이기도 하다. 이번 서울동행상회 입점 업체 2차 모집에는 전국 74개 지자체, 124개 업체, 388개 상품이 신청 접수됐다. 이중 판매 적정성·시장성 등 까다



군산시가 지역 주민들에게 우수 농수산물을 홍보하고 있다.

로운 1·2차 평가로 신청업체 62%가 탈락한 가운데 군산시는 신청한 6개 업체 모두가 입점하는 쾌거를 날았다.

이번에 입점한 군산시 업체는 ▲농부의 식품공장 이성일 농가 ‘귀리미숫가루’, ▲(유)산들팜 ‘무작꼬꼬마양배추사과’, ▲메인쿠폰브루잉 ‘짜보선창라거 수제맥주’ 등으로 이번에 선정된 6개 업체를 포함하여 총 13개 업체, 34개 상품이 입점하게 됐다.

아울러 서울동행상회 외부공간에서 군산 농특산물 팝업 기획전을 10월 말에서 11월 초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광장, 은평구, 동작구, 강남구 등 서울 지역에서 개최되는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와 코엑스 명절 선물전 등 농식품 박람회에 지역 농가 및 가공업체의 참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2024 서울야외도서관:광화문 책마당’의 특별 플랫폼 프로그램으로 11월 8~10일까지 광화문광장에서 동행마켓-로컬푸드 ‘군산’을 운영하여 지역 농가 및 가공업체 생산품의 판로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

/군산=박수현 기자

전라북도 대표매체
전북타임즈
The Jeonbuk Times

군산시, 지역 농특산물 수도권 판로 확대 총력

서울동행상회 입점 상품 모집에 6개 업체 선정, 전국 신청 지자체 중 최다

군산시(시장 감임준)가 지역 우수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동행상회 입점, 추석맞이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참가 지원, 군산 농특산물 직거래 홍보 판촉행사 개최 등 서울 수도권 농산물 소비시장 공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군산시는 지역 농특산물의 대도시 상설 판매와 홍보 기회 확대를 위해 서울동행상회에 지역 가공업체의 입점을 지원하고, 우수 농특산물 팝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동행상회’는 지역의 중·소농을 돕고 서울 시민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와 종로구 안국동에 설립한 농특산물 오프라인 상설매장이다.

특히 경복궁, 인사동과 인접하여 국내외 관광객 등 유동 인구가 많고 낮은

판매수수료 적용, 지자체 기획전 운영, 다채로운 판매 이벤트가 진행되어 각 지자체의 상품 입점 경쟁이 뜨거워 곳이기도 하다.

이번 서울동행상회 입점 업체 2차 모집에는 전국 74개 지자체, 124개 업체, 388개 상품이 신청 접수됐다. 이중 판매 적정성·시장성 등 까다로운 1·2차 평가로 신청업체 62%가 탈락한 가운데 군산시는 신청한 6개 업체 모두가 입점하는 쾌거를 날았다.

이번에 입점한 군산시 업체는 ▲농부의 식품공장 이성일 농가 ‘귀리미숫가루’, ▲(유)산들팜 ‘무작꼬꼬마양배추사과’, ▲메인쿠폰브루잉 ‘짜보선창라거 수제맥주’ 등으로 이번에 선정된 6개 업체를 포함하여 총 13개 업체, 34개 상품이 입점하게 됐다.

아울러 서울동행상회 외부공간에서 군산 농특산물 팝업 기획전을 10월 말에서 11월 초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이

를 통해 서울 시민과 인근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군산 우수 농수산물을 홍보·판매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광장, 은평구, 동작구, 강남구 등 서울 지역에서 개최되는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와 코엑스 명절 선물전 등 농식품 박람회에 지역 농가 및 가공업체의 참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2024 서울야외도서관:광화문 책마당’의 특별 플랫폼 프로그램으로 11월 8~10일까지 광화문광장에서 동행마켓-로컬푸드 ‘군산’을 운영하여 지역 농가 및 가공업체 생산품의 판로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

김미정 먹거리정책과장은 “서울동행상회 입점에 군산 업체와 농특산물이 지자체 중 최다 선정된 것은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시는 지역 우수 농특산물의 수도권 판로 확대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군산 우수 농특산물 수도권 공략 집중

‘서울동행상회’ 팝업 등 추진

군산시가 지역 우수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동행상회 입점, 추석맞이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참가 지원, 군산 농특산물 직거래 홍보 판촉행사 개최 등 수도권 농산물 소비 시장 공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일 시는 지역 농특산물의 대도시 상설 판매와 홍보 기회 확대를 위해 서울동행상회에 지역 가공업체의 입점을 지원하고, 우수 농특산물 팝업

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동행상회’는 지역의 중·소 농을 돕고 서울 시민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가 종로구 안국동에 설립한 농특산물 오프라인 상설매장이다.

이번 서울동행상회 입점 업체 2차 모집에는 전국 74개 지자체, 124개 업체, 388개 상품이 신청 접수됐다.

이중 판매 적정성·시장성 등 까다로운 1·2차 평가로 신청업체 62%가 탈락한 가운데 군산시는 신청한 6개 업체 모두가 입점하는 쾌거를 낳았다.

군산=이재봉기자

전북제일신문

군산시, 농특산물 수도권 판로 확대

군산시가 지역 우수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역 농특산물의 대도시 상설 판매와 홍보 기회 확대를 위해 서울동행상회에 지역 가공업체의 입점을 지원하고 우수 농특산물 팝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서울동행상회에 입점한 군산시 업체는 △농부의 식품공장 이성일 농가 '귀리미숫가루' △(유)산돌팜 '무작꼬꼬마양배추사과' △메인쿤브루잉 '짜보선창라거 수제맥주' 등으로 이번에 선정된 6개 업체를 포함해 총 13개 업체, 34개 상품이 입점하게 됐다.

아울러 서울동행상회 외부공간에서 군산 농특산물 팝업 기획전을 오는 10월말에서 11월초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서울 시민과 인근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군산 우수 농수산물을 홍보·판매한다는 계획이다.

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광장, 은평구, 동작구, 강남구 등 서울 지역에서 개최되는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와 코엑스 명절 선물전 등 농식품 박람회에 지역 농가 및 가공업체의 참가를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2024 서울야외도서관:광화문 책마당'의 특별 플랫폼 프로그램으로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광화문광장에서 동행마켓-로컬푸드 '군산'을 운영해 지역 농가 및 가공업체 생산품의 판로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

/군산=이찬우 기자

농특산물 판로 확대 '총력'

군산시, 서울동행상회 입점
직거래 장터 소비시장 공략
우수 품질 홍보 마케팅 심혈

군산시가 지역 우수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동행상회 입점, 추석맞이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참가 지원, 군산 농특산물 직거래 홍보 판촉행사 개최 등 서울 수도권 농산물 소비시장 공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군산시는 지역 농특산물의 대도시 상설 판매와 홍보 기회 확대를 위해 서울동행상회에 지역 가공업체의 입점을 지원하고 우수 농특산물 팝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동행상회'는 지역의 중·소농을 돕고 서울 시민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가 종로구 안국동에 설립한 농특산품 오프라인 상설매장이다. 특히 경북궁, 인사동과 인접해 국내외 관광객 등 유동 인구가 많고 낮은 판매수수료 적용, 지자체 기획전 운영, 다채로운 판매 이벤트가 진행돼 각 지자체의 상품 입점 경쟁이 뜨거운 곳이기도 하다.

이번 서울동행상회 입점 업체 2



군산시가 지역 우수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직거래 홍보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차 모집에는 전국 74개 지자체, 124개 업체, 388개 상품이 신청 접수됐다. 이중 판매 적정성·시장성 등 까다로운 1·2차 평가로 신청업체 62%가 탈락한 가운데 군산시는 신청한 6개 업체 모두가 입점하는 쾌거를 낳았다.

이번에 입점한 군산시 업체는 △농부의 식품공장 이성일 농가 '귀리미숫가루' △(유)산돌팜 '루작꼬꼬마양배추사과' △메인 쿤브루임 '짜보선참라거 수제맥주' 등으로 이번에 선정된 6개 업체를 포함해 총 13개 업체, 34개 상품이 입점하게 됐다.

아울러 서울동행상회 외부공간에서 군산 농특산물 팝업 기획전을 10월 말에서 11월 초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서울

시민과 인근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군산 우수 농수산물을 홍보·판매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 광장, 은평구, 동작구, 강남구 등 서울 지역에서 개최되는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와 코엑스 명절 선물전 등 농식품 박람회에 지역 농가 및 가공업체의 참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2024 서울야외도서관: 광화문 책마당'의 특별 플랫폼 프로그램으로 11월 8~10일까지 광화문광장에서 동행마켓-로컬푸드 '군산'을 운영해 지역 농가 및 가공업체 생산품의 판로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

/유상근 기자